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⑤

- 서울 법수선원

간화선 수행의 핵심인 '화두'. 서울 법수선원은 화두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수행자 스스로가 품은 생로병사의 근본 의심을 화두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화두를 참구하지 않는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란 근원적인 의심만이 오롯이 수행자의 화두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라와 인류를 구원할 근거가 있는 '새끼 사자'를 키워야 한다는 조실 성수 스님(조계종 원로위원)의 원력도 선원 가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스님은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자는 선수행을 간절히 해, 오도록 씩히는 불교의 참맛을 느껴야 한다"고 가르친다.



'나라와 인류를 구원할 근거 있는 새끼 사자를 기르자'는 조계종 원로위원 성수 스님의 원력이 녹아있는 법수선원. 재가선객들이 선원에서 참선정진을 하고 있다.

'생로병사의 근본' 화두로 정진

'소수정예' 회원제로 운영

도심에서는 연동종제로 분주한 5월 8일 오전, 법수선원은 정진 열기를 뜨거웠다. "참선수행을 통해 나를 깊이 참구해보겠다는 사람만 방부를 들입니다."

선원장 영주 스님은 단호했다. 30명 '소수정예' 회원제로 선원을 운영한다는 것. 한달에 참선 정진 8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은 가져 없이 퇴방 조치시킨다는 스님의 말에서 법수선원의 엄격한 수행가풍을 읽을 수 있었다.

선방 회원들도 이 같은 선원 정진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중수기업을 운영한다는 윤신호(59·용담) 씨는 "최소한의 정진 시간인 8시간은 깨달음을 위한 위대한 구속"이라며 "타율이 아닌 자율로써 참선수행의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법수선원이 이처럼 선방을 운영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난 1973년 성수 스님이 이곳에 선원을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고집스레 지켜온 정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선을 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만 입방을 허락한다'는 규칙. 이는 대중들이 주변의 장애 없이 자연스럽게 정진 분위기에 젖어들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법수선원만의 자발적인 수행풍토를 조성했다.

때문에 법수선원은 방부 들이는 조건이 까다롭다. 참선 유경험자들로 입방 자격을 제한한다. 특히 선원장 스님의 상담을 통해 지원자가 용맹정진을 하겠다는 신심을 확실하게 했는지 의심에 대한 본심이 일어났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최종적으로 방부를 부여한다.

화두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법수선원의 수행 특징은 화두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인 화두 제시가 오히려 수행자 자신에게 현실한 신심과 본심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두를 주지 않는다. 대신 '죽고 사는' 근본적인 문제, 즉 생사 그 자체가 화두가 된다는 것을 일상 생활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30년 넘게 수행해온 김희중(72·대비심) 씨가 자연의 무상(無常)함을 통해 화두를 듣게 됐다는 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봄이 되면 푸른 잎이 돋고, 가을에는 낙엽이 돼 떨어지죠. 보잘 것 없는 풀도 마찬가지예요. 비바람에 짓밟혀도 어느새 봄이 되면 싹을 틔우죠.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놓인 풀이 방긋 웃으며 나를 보더군요. 그 순간 무릎을 딱 쳤죠. '미물인 풀도 생생하게 내게 무상을 일러주는 데...' 부끄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죠. 그때 이후 지금까지 참선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나를 꾸짖으며 그것을 화두 삼아 정진하고 있어요."

이원호(71·보현성) 씨도 일상에서 얻은 경험에서 화두를 듣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20년전 인가요. 버스를 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없애지고 버스가 없어지고 그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죠. 버스에서 내려야 했는데, 내리질 못했죠. 내가 있고 버스가 있어야 내리죠. 순간, '여기가 극락이구나. 이것이 나고 죽지 않는 생명체구나' 생각했죠. 그 때 느낀 경험이 바로 제게 화두가 됐습니다."

선원은 이처럼 수행자가 일상사에서 직접 겪은 경험 하나하나를 상담을 통해 참구할 화두로 연결시켜준다. 의심 형성이 미비한 사람에게 특정 화두를 추천

주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자발적으로 찾은 화두를 통해 올바른 마음공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일이 짚어준다.

초심자 위해 '염불선' 프로그램 운영

법수선원은 올 3월부터 '염불선' 수행법을 정식 수행 프로그램으로 도입했다. 선수행 초심자를 위해 마련된 염불선 수행은 매달 한 번 불교기초교리 강좌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선원 신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 시민선원에서는 드물게 염불선 수행을 제안한 신도회 김상규(64·만산회장)은 "일반신도들이 염불선 정진으로 수행의 맛을 보고 난 뒤, 부담 없이 선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염불선 수행을 도입하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선수행으로 연결시켜주려는 의도에서 염불선 수행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법수선원은 또 매달 음력 초하루 오전 11시에 선법회를 열고 있다. 성수 스님의 선법회,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선법회는 선원 신도들의 선수행 안목을 띄워주는 것은 물론, 공부점검의 장도 되고 있다. www.bssw.or.kr (02)3411-1139

글·사건·김철우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8> 황제를 두들겨 패다

중국역사에서 왕권과 교권은 협력관계인 동시에 긴장관계였다. 그런 까닭에 출가자가 왕에게 예의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늘 교단을 유지해야만 하는 선지식어른들의 화두이기도 했다. 고지식한 출가인 여산해원 스님은 원칙론에 입각해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子論-사문은 설사 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절을 해서 안 된다)'을 저술하여 왕과 출가자의 관계를 이미 정립해 놓은 터이다. 인도에서는 종교인인 브라만 계급이 정치인인 크샤트리아 계급 위에 있으니 왕에게 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왕 위에 하늘이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황제를 '천자'라고 부르는 문화권이다. 따라서 출가자 역시 당연히 신하로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수해야 했다. 이 와중에서도 스님들은 불법에 의거하여 출가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알게

사실 선문답은 여기서 끝났다. 사미가 알아듣고서 한소식 해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또 하는 것이었다. "예불은 해서 무엇합니까?" 그러자 황벽 스님은 할과 방이 필요한 순간인지라 그 사미승의 뺨을 한 대 후려쳤다. 각본대로 하면 '그 사미는 그 순간 깨쳤다' 하고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스님께서서는 후학을 너무 거칠게 다루십니다." 이제부터는 피차 중생놀음으로 전락해 버렸다.

"어려맞아도 참 보니 무슨 거칠게 다루니 마느니 할게 있느냐? (입은 살아가지고)" 그리고는 연거푸 두 대 더 때렸다. 도합 석 대였다.



뒷날 그 사미는 선종황제로 즉위하였고 황벽 선사 역시 한 산종의 방장이 되어 법력을 떨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황제의 자격으로 선사에게 시호를 내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어릴 때 절에

선문답중 황제 될 사미 뺨 때린 황벽 선사 훗날 황제에게 '강패스님' 시호 받을 뻔

모르게 왕권과 늘 줄다리기를 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신심있는 왕이 등장하면 바라는 처럼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면 궤를 내지는 탄압을 당해 수도라 계급처럼 숨어서 지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염관선사 회상에서 황벽 스님이 공부할 때 일이다. 한 사미승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미는 당나라 황제의 주역인 무종을 피해서 절로 도망쳐 온, 뒷날 선종황제가 될 인물이었다. 선사가 열심히 목탁을 치면서 예

서 지낸 인연으로 신심은 여전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 스님에게 얻은 맛은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꿈같이 생각하다가 '추행사문(推行沙門-정말 거칠었던 스님)'이라고 호를 지었다. 점점 표현한 '추행사문'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강패스님'쯤 될 것이다. 그때 마침 재산인 배후 거사가 이 교지를 받아 들고서 감쪽 놀라 이렇게 간언하였다. "세 차례 때린 것은 삼제(三際) 즉 삼세 동안의 번뇌를 끊어주려고 하신 자비행이 오니 호를 단절(斷際)라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사에게 얻어맞고서 엄장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말이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더니 배 정승의 안목쯤 되니까 이렇게 둘러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황제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한 까닭에 황벽 스님에게 '추행'이 아니라 '단제'라는 시호가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김필필, 그렇게 아무나 두들겨 패는게 아니라니까. ■ 원월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아빠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빠타 센터

아빠타 마스터 김해균 전화주시는 본래는 언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t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t21.com

우곡선원, 참선교육

생활 참선 도량인 우곡선원(원장 장명화)은 5월 30일부터 3주간 서울과 부산 선원에서 제27·28기 참선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서울 우곡선원은 5월 30일~6월 16일 매주 화, 목요일 8시부터 2시간 씩 진행되며 △실상관법 △좌선과 호흡 △좌선과 △수행체계 요론 △우곡 선기공 △참선입문론 △선입문의 예(禮) 등을 주제로 장명화 선원장과 선원 법사단이 지도

한다. (02)2055-3111-2. 또 부산 우곡선원의 참선교육은 5월 31일~6월 17일 매주 화, 금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씩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동일하다. (051)740-6288-9 www.zankorea.org

금강선원 '임제록' 강의

서울 금강선원(원장 혜거)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원 대법당에서 중국 당나라 선승 임제의현의 범어집 <임제록(臨濟錄)>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선원장 혜거 스님이 직접 강연한다. (02)445-

8484 www.geumgang.org

명상아카데미, 7차 캠프

명상아카데미(대표 혜봉)가 자연과 함께 하는 명상캠프를 7차에 걸쳐 연다.

7월 8일~8월 23일 오대산 서울게스트 하우스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4박 5일 프로그램으로 마련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바라보기 명상, 알아차리기 명상, 하나되기 명상, 지우기 명상, 참구하기 명상 등을 배울 수 있다. 각 차수별로 선착순 20명. 수련비 25만원. (02)598-7180

개 천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응암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마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상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運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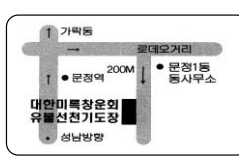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돌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황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공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외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으로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입니다!